

양보없는 수원군공항... 10년째 ‘공공’

수원·화성 사이 기약 없는 신경전

수원시, 첨단연구단지 특별법안 발의
두 市 고도제한 피해 해소 내용 담겨
화성 “군 공항 이전 부지 미정 상태,
특별법 우선 제정은 잘못된 일” 입장
합의점 모색 아닌 ‘평행선’ 대립 상황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및 군공항이전 구상(안). 수원시 제공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5일 백혜련(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에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가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됐다.

또 ‘첨단연구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는데 수원·화성 시민의 소음 및 고도제한 등 피해 해소와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반대 서명 5만 부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화성시는 군 공항의 이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부터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지정한 예비 이전부지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의된 특별법안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 참여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공공건설을 위한 법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화성시와 수원시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시는 해당 특별법안은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됐을 경우 종전 부지 및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특별법안은 군 공항이 이전됐을 때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수반돼야 함에 따라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산업, 경제 등 도시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두 지자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화성시는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두 지자체 모두 소음 등 피해를 보는 지역인 만큼 소음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공론화가 아니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 기자

“당신의 하나뿐인 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 토론회 개최
순직교사 1주기... 현장교사 “그대로”
현장 안착된 문화·실질적 지원 ‘시급’
도교육청, ‘교권보호 4법’ 개정 약속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 입구에 순직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이보현 기자

순직교사 1주기가 지난 가운데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권보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현장교사에게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경기도 내 현장교사 300여 명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광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창준 국민의힘 교육수석 등이 참여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현장교사들에게 교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교권4법 생활지도 고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보완점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개정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학교 방문 사전 시스템 구축,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 대응팀 구성, 민원 면담실 조성 등의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겠다”

고 약속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은 “정책 수립보다 중요한 현장 안착”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책의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교사들을 위해 현장에 안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교사와의 토론회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대응 시스템’, ‘문제 학생 지도 및 분리’, ‘관리자&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지원 미비로 인해 힘들었던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답하며 “안전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책이 현장에 내실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명문화된 법과 제도가 아닌 현장에 안착된 문화와 실질적 지원으로서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모든 학생의 배움이 보장되는 교실을 만드는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기자

멍들지 않는 조직문화 피우는 수원시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등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갑질 금지 규정·대응 매뉴얼 주제 진행

수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 선다.

25일 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지난 교육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행동강령

의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공직 생활 속 이해충돌 트렌드 소개, 갑질 대응 매뉴얼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주 전문 강사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누군가를 따라서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며 “모든 공무원이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수원’이 되려면 갑질 없는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관리자부터 솔선



지난 24일 진행된 수원시 고위공직자 등 관리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수원시 제공

수범하는 청렴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진 기자

수원 수놓은 무궁화 아름다움에 ‘활짝’

내달 18일까지 나라꽃 전시회 개최
영흥숲공원·행궁동공방거리 ‘가득’

수원시가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5일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영흥숲공원, 행궁동공방거리, 수원무궁화원, 연무시장에서 ‘2024년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흥수목원 방문자 센터 앞에 무궁화 100여 개를 전시하고 여름 초화와 어우러진 무궁화 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제시한다.

행궁동공방거리 전시는 약 400m 거리에 무궁화 40여 개를 전시하고 공방거리 상인회와 협업해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수원무궁화원은 전시 기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고 연무시장 무궁화 전시회에는 약 500m 거리에 무궁화 화분 20개가 전시된다.

이밖에 무궁화 전시회가 열리는 거리에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무궁화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연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전시회를 찾아 무궁화를 감상하고 나눔행사에 참여해 무궁화를 키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 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경기신문!

이제 가판대에서 만나보세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지의 버스정류장, 세븐일레븐, GS25, CU 등 400여곳 가판대에서 판매중

